

	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걸기 소장
		일시	2024. 7.

CEPA Insight

- 베트남, 2분기 경제성장률 6.93%(잠정치)..5년래 두번째로 높아
- 베트남,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...전력계획 수정 불가피
- 베트남, '부가세 10%→8% 인하' 연말까지 연장...국회 승인

■ 베트남, 2분기 경제성장률 6.93%(잠정치)..5년래 두번째로 높아

- 베트남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.
- 통계총국(GSO)은 최근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.93%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.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.42%(잠정치)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이 같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국제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자 동시에 2020~2024년 동기중 2022년(7.99%)에 이어 5년래 두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.
-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(IB) 스탠다드차타드와 싱가포르계 대형 은행그룹 UOB는 각각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5.3%, 6% 등을 제시한 바 있다.
- 상반기 주요 성장동력인 서비스와 산업 및 건설은 전체 경제구조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두 부문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.
-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6.64% 성장해 전체 GDP의 49.76%를 기여했으며 뒤이어 산업·건설은 7.51% 성장해 전체의 44.28%를 차지했다. 앞서 산업 및 건설이 전년 동기 1.13% 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회복세다.

- 이어 상반기 교역액은 3,685억 3,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.7% 증가했다. 이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1,900억 8,000만달러, 1,784억 5,000만달러로 각각 14.5%, 17% 증가해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116억 3,000만달러를 기록했다.
- 대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입이 모두 두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13.5% 줄어든 무역흑자는 중간재 수입·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베트남의 전체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제조업의 회복이 본격화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.
- 상반기 국가별 교역액은 미국 수출이 22.1% 늘어난 543억달러, 중국 수입이 34.7% 늘어난 670억달러로 각각 최대 수출입시장을 유지했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945>

■ 베트남,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...전력계획 수정 불가피

- 공상부 전기·재생에너지국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나리오 '베트남 에너지 전망-탄소중립을 향한 길(EOR-NZ)' 보고서를 발표했다. 이번 시나리오 마련에는 덴마크 에너지청 및 주베트남 덴마크 대사관이 함께 참여했다.
- 앞서 팜 민 찌(Pham Minh Chinh)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26) 당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세계에 공언한 바 있다.
-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탄소배출량이 정점에 이르고 동시에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전보다 더 가속화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.
-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육상풍력발전 17GW, 태양광발전 39GW 등을 포함해 56GW으로 추정된다. 다만 이는 '2021~2030년 제8차 국가전력계획(PDP8)'에서 목표로 세운 태양광발전 용량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, 시나리오대로라면 전력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

- PDP8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용량은 12.8여GW로 전체 발전 용량의 8.5%에 불과하다. 반면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21.9GW, 6GW로 전체의 18.5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특히 보고서는 베트남이 해상풍력발전 입지 모색과 항만인프라 준비, 송전망 강화 등의 사전작업에 즉각적으로 나서는 한편, 해상풍력발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규정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다.
-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크리스토프 뵈트자우(Kristoffer Böttzauw) 덴마크 에너지청 국장은 “베트남은 재생에너지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로 녹색전환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사회 전체의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니콜라이 프리츠(Nicolai Prytz) 주베트남 덴마크대사는 “오늘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중 하나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”며 “신속하고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은 물론 추가적인 FDI(외국인직접투자)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873>

■ 베트남, '부가세 10%→8% 인하' 연말까지 연장...국회 승인

-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베트남의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.
-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7차 회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찬성률 95%로 승인했다.
- 이에 따라 통신, 부동산, 금융(은행·증권·보험 등), 정보기술, 금속·금속가공, 광업, 석유정제,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 서비스 및 품목은 연말까지 종전과 같이 8%의 부가세율이 유지된다.

-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하반기 감세 규모는 24조동 (9억4,297만달러), 연간으로는 47조5,000억동(18억6,631만달러)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.
-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“부가세 인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지출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줘 수요 진작과 소비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947>